

大塚本 『金鰲新話』 體裁에서 본 讀者層 性向

河 岡 震*

차 례

I. 서 론	III. 독자층의 유학적 성향
II. 텍스트 편집의 체재	1. 편찬자의 학문 성격
1. 서발문의 특징	2. 서발문의 텍스트 인식
2. 주석의 양상	3. 주석·비평의 시각
3. 비평의 양상	IV. 결 론

I. 서 론

金時習(1435~1493)의 『金鰲新話』는 한국 소설 발달사와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전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과 시각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비교문학적인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진 것은 동아시아 傳奇小說의 전개에서 차지하는 『金鰲新話』의 위상에서 볼 때 필연적 경향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崔南善이 일본에서 大塚本 『金鰲新話』를 발견하고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언급되던¹⁾ 중국의 『剪燈新話』와의 영향 관계를

* 동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전임강사

1) 金安老의 『龍泉談寂記』나 趙基永의 『生六臣合集』 등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다.

확대하여 『금오신화』의 구체적인 작품을 비교·검토하였고, 이 이후로 계속적으로 작품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심화·확대되었다.²⁾ 그리고 『금오신화』와 『剪燈新話』·『伽婢子』의 관계,³⁾ 최근에는 월남의 『傳奇漫錄』과의 관계에까지 그 비교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⁴⁾

그런데 본격적인 『금오신화』의 비교문학적 연구를 가능케 한 대충본 『금오

-
- 2) 崔南善, 「〈金鰲新話〉解題」, 『啓明』 19호, 1927
 松田甲, 『續日鮮史話』 제2편, 朝鮮總督府, 1931
 金台俊, 『增補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朴晟義, 「比較文學의 見地에서 본 金鰲新話와 剪燈新話」, 『文理論集』 제3집, 고려대, 1958
 金瑋成, 「金鰲新話와 剪燈新話의 比較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1964
 李明九, 「李朝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大東文化研究』 제5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8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1969
 林燮澤, 「現實主義의 世界觀과 金鰲新話」, 國文學研究 第13집, 國文學研究會, 서울대, 1971
 韓榮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構成比較研究』, 開文社, 1975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李相翊,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삼영사, 1983
 李石來, 「金鰲新話는 剪燈新話의 모방인가」, 『韓國文學史의 爭點』, 집문당, 1987
- 3) 久保天隨, 「剪燈新話と東洋近代文學に及ぼせる影響」, 『文學科研究年報』 제1집, 臺北帝國大學 文政學部, 1934
 宇佐美喜三八, 「伽婢子に於ける繚案について」, 『和歌史に關する研究』, 大阪, 若竹出版社, 1952
 玄昌厦, 「伽婢子と金鰲新話」, 『比較文學』 제3권, 日本 比較文學會, 1960
 佐藤俊彦, 「剪燈新話·伽婢子及び金鰲新話의 比較研究」, 『朝鮮學報』 第23輯, 朝鮮學會, 1962
 鄭琦鎬, 「金鰲新話와 伽婢子における受容의 樣態」, 『朝鮮學報』 第68輯, 朝鮮學會, 1973
 韓榮煥, 『한·중·일 소설의 비교 연구』-剪燈新話·金鰲新話·도기보오꼬를 중심으로-, 정음사, 1985
- 劉建強, 「剪燈新話, 伽婢子以及金鰲新話의 比較研究」, 『梅月堂-그 文學과 思想』, 강원대 출판부, 1989
- 4) 郭正植, 「베트남(Viet-Nam)의 傳文學에 관한 연구」, 『韓國文學論叢』 제12집, 韓國文學會, 1991
 전해경, 「동양권 傳奇小說의 比較적 시각에서 본 <<金鰲新話>>의 위상」, 『古小說史의 諸問題』(省吾蘇在英教授還曆紀念論叢), 集文堂, 1993

신화』⁵⁾는 江戸時代に 간행된 여타 異本과는 달리 版權紙·序·傳·跋·批評·注釋 등이 첨가되어 서적의 體裁를 갖추고 있다는⁶⁾ 점이 주목된다. 우선 판권지의 윗부분에는 “序跋批評”이라 하여 『금오신화』에 서·발·비평이 들어있음을 안내하고, 가운데에 위치한 “朝鮮金時習著 金鰲新話”라는 표제는 그 작가와 서명을 나타내고, 서명의 오른쪽에는 “三島中洲 依田百川 蒲生重章 小野湖山 長梅外 谷彦” 등의 일본인과 “李樹廷 李景弼” 등의 한국인을 기재하여 출판의 참여자들을 나타내며, 서명의 왼쪽에 있는 “大日本明治十有七甲申 歲初秋 東京 椽月堂藏梓”라는 刊記는 간행의 시기와 출판소명을 알려준다. 판권지 다음에는 依田百川의 序文이 붙어 있고, 계속해서 작자를 알 수 없는⁷⁾ 傳이 실려 있다. 또 본문의 欄外 上段에는 小野湖山·三島中洲·長梅外·李樹廷·李景弼 등의 비평과 주석이 細注로 붙어 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난 뒤에는 李樹廷·蒲生重章·梅外仙史·小野湖山の 跋文이 붙어 있어 서적의 형태를 갖추었다.

일본에서 한국의 고소설, 특히 한국에서 간행된 고소설에서 볼 수 없는 서적 형태로 간행된 것은 특이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소설 이외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많은 서적들이 일본에서 간행된 사실을 볼 때,⁸⁾ 양국간의 문화의 교류라는 입장에서 이들 서적 출판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금오신화』는 그 의미를 해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금오신화』가 어떤 계층의 요구에 의해 간행되었고, 또 보급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천착이 이루어져야⁹⁾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5)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서적을 텍스트로 하였다.

『金鰲新話』(韓國學文獻研究所編), 亞細亞文化社, 1973

『金鰲新話』, 保景文化社, 1986

柳鐸一編, 『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亞細亞文化社, 1994

6) 久保天隨, 앞의 논문, p. 90

7) 이 傳의 작가에 대해서는 亡命 僑儒(崔南善)·李景弼(久保天隨)·李樹廷(李家源·鄭柱東) 등 그 의견이 다양한데, 이경필이나 이수정으로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8) 柳鐸一, 『朝鮮朝 日本刊行 韓國書籍 初探』, 『語文教育論集』 제8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 참고

특히 서적의 체재를 갖춘 대총본 『금오신화』에 첨가된 주석·비평은 독자층의 정밀한 독서(close reading)의 한 양상을 드러내는데, 이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수용하였고, 전기소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것은 『금오신화』를 소홀히 인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한국의 소설 나아가 한국 문헌을 어떤 시각에서 수용하였는가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점을 근거에 두고 大塚本 『金鰲新話』 체재의 구체적인 특징을 통하여 독자층의 성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텍스트 편집의 체재

1. 서발문의 특징

완전한 서적의 체재를 갖춘¹⁰⁾ 대총본 『금오신화』에서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서문과 발문이다. 依田百川의 서문과 李樹廷·蒲生重章·梅外仙史·小野湖山の跋文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성격과 출판의 동기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텍스트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보고자 한다. 이것에 대하여 梅外仙史는 『금오신화』의 발문에서 “전체의 작품은 문장이 화려하고, 詩賦가 매우 풍부하여 紀事와 傳奇的 아름다움이 있다.…… 그 논한 바가 결코 보통의 전기의 부류는 아니다.”¹¹⁾라 하였다. 여기서 ‘전기의 아름다움’은 『금오신화』의 傳奇小說 형태에 주목한 언급이라 하겠다.¹²⁾ 즉 傳奇小說로서 『금오신화』의 미적 특

9) 柳鐸一, 같은 논문, p. 223

10) 조선에서 1549·1559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柳鐸一, 「15·6世紀 中國小說의 韓國轉入과 受容」, 『語文教育論集』 제10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8, pp. 38~48 참고) 『剪燈新話句解』가 임진란 후에 일본에 전해져 續刻되어 널리 읽혔는데(久保天隨, 앞의 논문, pp. 97~103 참고), 註解의 구성을 갖춘 『剪燈新話句解』의 체제도 대총본 『金鰲新話』의 서적 형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11) 梅外仙史, 「金鰲新話跋」, “通編 文章華麗 詩賦清腴 紀事傳奇之佳者也……而其所論 非尋常傳奇之類也”

12) 이외에 이수정의 발문에서도 『금오신화』의 전기성을 지적하고 있다.

성은 각종의 文章 형식과 詩賦 등 운문의 형식에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¹³⁾ 사실 초기 장르에서 설화가 전경 또는 지배소이고, 시가는 배경 또는 종속요소가 되는데,¹⁴⁾ 전기소설은 서정적 자질의 비중이 높은 서정적¹⁵⁾ 소설로 이해될 수 있겠다. 『금오신화』에 있어서의 서정적 자질은 다양한 고백적인 서사 형태와 시가 등인데, 說話나 傳 등의 기존의 서사유형이나 혹은 현존하는 소설의 전통 속에서 작가가 구성한 서사 유형의 시적인 조각에 의해 결정된¹⁶⁾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금오신화』의 출판자들은 『금오신화』의 장르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서문과 발문을 통하여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오신화』는 중국의 전기소설인 『剪燈新話』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전등신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설 문학에도 영향을 주어 淺井了意의 『伽婢子』나 上田秋成의 『雨月物語』를 생산케 한 것은 이미 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 『금오신화』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依田百川은 서문에서 “이 작품들은 대개 명나라 사람 瞿宗吉이 지은 『전등신화』를 의작한 것이다.”¹⁷⁾라 하였고, 李樹廷은 발문에서 “오직 『금오신화』는 다만 등본이 있었는데, 매월당이 그 책으로써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니 『전등신화』를 전적으로 모방한 것이다.”¹⁸⁾라 하여, 『금오신화』는 중국의 『전등신화』와 깊은 영향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전기소설의 전개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전등신화』

李樹廷, 『金鰲新話跋』 “其傳奇之作 甚稀 僅有梅月堂『金鰲新話』 金春澤『九雲夢』 數種而已”

- 13) 이는 金時習이 「題剪燈新話後」에서 “手剪燈火錄奇語 有文有騷有記事 遊戲滑稽 有倫序”라 하여 『剪燈新話』를 각종의 문체가 구비된 텍스트로 인식한 태도와 유사하다.
- 14) 金垓五, 「장르의 生成·發達·消滅」-문학사와 장르변화-, 『韓國文學史 敘述의 諸問題』(樹堂金錫夏先生古稀紀念論集刊行委員會編), 단국대 출판부, 1993, p. 70
- 15) 여기서 ‘抒情的’은 서정에 속하지 않은 장르종이나 작품의 이차적 특징을 말하는 용어로 쓴 것이다.(趙東--,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77, p. 117 참고)
- 16) Ralph Freedman 지음/신동욱 옮김, 『抒情小說論』, (株)現代文學, 1989, pp. 12~13
- 17) 依田百川, 『金鰲新話序』 “此篇 蓋擬明人瞿宗吉剪燈新話”
- 18) 李樹廷, 『金鰲新話跋』 “惟金鰲新話 只有謄本 以梅月堂 有重名於世之以其書 全做剪燈新話”

와의 관계 속에서 『금오신화』의 가치를 인식하려 하였고, 그러한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사실을 발문을 통해서 밝힌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출판의 동기이다. 『金鰲新話』의 출판은 대총본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1653년(承應本, 內閣文庫本)·1660년(萬治本)¹⁹⁾·1673년(寬文本, 天理本·하바드大本) 등 세 차례 있었는데,²⁰⁾ 명치시대 초기에 다시 이전에 간행된 『금오신화』를 改版하여 출판함에 있어서 그 출판의 시말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대의식이나 문예의식을 반영하는 소설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문예양식이 생산되던 때인데, 이에 비해 한문 전기소설 특히 외국 소설의 출판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출판자의 입장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依田百川은 그 출판의 동기를 시사하고 있다. 즉 『금오신화』의 간행은 “조선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된 지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정의가 더욱 가까와 재주있는 선비들이 그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 또한 善隣의 일단이다.”²¹⁾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총본이 간행된 1884년(명치 17년)은 봉건성 타도의 의지가 강하여, 정신의 발달함을 잃지 않고 구시대에 대한 비판과 사회와 인간의 해방, 진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제출되던 시기였다.²²⁾ 이러한 경향 속에서 서구 문학의 번역과 번안소설이나 자연 과학을 다룬 과학소설 등이 출현하여 전대의 권선징악의 내용이나 황당무계한 소설 등에 대치되었고, 새로운 시대의식을 반영한 정치소설

19) 萬治本 금오신화의 텍스트는 현재 알려진 바 없으나, 天理本 금오신화의 맨 끝에 기재된 “萬治三曆仲夏吉旦”이란 刊記에 의해서 金鰲新話가 萬治3년(1660)에 간행된 사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천리본에 萬治 이하의 刊記가 특별히 기재될 필요는 없었다고 보면, 천리본은 만치본을 조금도 수정없이 그대로 再印하면서 刊記(寬文十三丑年仲春 福森兵左衛門板行)만을 異體로 삽입하여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20) 柳鐸一, 「梅月堂 金鰲新話의 版本 分析」(발표요지), 韓國學 環太平洋國際會議, 日本 東京外國語大, 1994

21) 依田百川, 「金鰲新話序」 “遂付之梓 以永其傳 朝鮮與我同好久矣 近日交最密 情最親 其有才賢 猶在我也 表其隱而揭之 亦善隣之一端也”

22) 小西甚一 지음/김분숙 옮김, 『일본문학사』, 고려원, 1995, p. 226

이 독서계를 풍미하였다.²³⁾

이 시기에도 물론 江戸 말기 이래의 戲作문학과 전통시가 및 歌舞伎의 흐름을 이은 작품이 계속 쓰여지고 있었지만, 『금오신화』의 간행은 새로운 문학적 경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오신화』의 출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였고, 그 의의를 조선 지식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양국간의 선린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²⁴⁾ 국제간의 문화적 교류라는 점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당시 국외적 관계 특히 조선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시대적 사정과 결부되어²⁵⁾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출판 사정을 서문과 발문을 통하여 밝혔던 것이다.

다음으로 대충본 『금오신화』의 외적 형태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석과 비평이다.²⁶⁾ 이것은 다양한 산문 양식과 시가 양식이 혼합되어 있고, 어려운 전통 한문으로 서술된 『금오신화』 텍스트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주석의 양상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해당 작품에 쓰인 言語文字의 장애, 歷史文物의 지식, 작자의 思想, 창작 목적과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작품을

23) 李玉順, 『日本文學史』, 동아대 출판부, 1985, p. 131 참고

24) 櫻井義之의 『明治年間 朝鮮研究文獻誌』(書物同好會, 京城, 1941)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명치 년간에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한국 관련 연구 서적은 朝鮮事情一般, 歷史·傳記, 內政·外交, 經濟·産業, 地誌·紀行, 教育·文藝, 宗教·衛生, 朝鮮地圖 등 다양한 분야의 579종이나 된다. 이 중 金鰲新話의 간행 시기(1884) 이전까지의 서적만하더라도 59종에 달하는데, 조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 이 시기의 한일 관계는 상호 선린 관계로만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미 체제 개혁과 근대화를 성취한, 이 시기의 일본내의 정부당국자나 민간에서 보였던 한국관에 지배나 침략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미야케 히데토시 지음/하우봉 옮김,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 풀빛, 1990, pp. 160~175 참고)

26) 주석과 비평의 횟수를 계산해보면 三島中洲는 99회, 小野湖山은 84회, 長梅는 14회, 李樹廷은 13회, 李景弼은 5회 등 총 215회로 나타난다. 통계 수치에서 보듯이 일본인의 주석과 비평이 위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²⁷⁾ 注釋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나온 텍스트 이해의 한 방식인데, 『금오신화』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금오신화』가 텍스트 성격상 산문과 운문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고,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대폭적으로 반영한 작품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입장에서 주석이 절실히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첫째, 言語文字에 대한 주석이다. 이 주석은 문자의 쓰임과 관련된 것으로 전통적인 校勘·訓詁에 해당되는데, 古書들을 閱讀할 때 繁難·異體·假借·訛誤 등에서 발생하는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²⁸⁾ 「萬福寺樗蒲記」의 “中洲曰一蒲戲爲仙凡之媒”에서 ‘蒲戲’라는 어휘를 선계와 세속을 매개하는 놀이로 주석하였다. 이는 蒲戲가 단순한 놀음이 아니라 여인과 양생의 인연을 맺게 하는 계기로 기능하는 어휘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萬福寺樗蒲記」의 “李樹廷曰 嗒嗒當作嘖嘖”은 서생이 네 여인의 시문이 뛰어난 것을 평가한 것에 대한 주석인데,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어휘는 ‘嗒嗒’가 아니라 ‘嘖嘖’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李生窺牆傳」에서 “閣作閤如何” “千作平如何” “顛作填如何”라 하였고, 「醉遊浮碧亭記」에서 “亭今作樓”라 하였으며, 「南炎浮洲志」에서 “冤作怒如何”라 하였는데, 전후 문맥상 ‘閣’은 ‘閤’, ‘千’은 ‘平’, ‘顛’은 ‘填’, ‘亭’은 ‘樓’, ‘冤’은 ‘怒’로 대치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자에 대한 자세한 주석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歷史名物에 대한 주석이다. 작품에 쓰인 역사명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작품의 이해에 필수적²⁹⁾이라고 보아 문장에 注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주석은 비교적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 「萬福寺樗蒲記」의 “南原在全羅道 萬福寺三韓古刹” “寶蓮寺南原古寺 今無” “智異山在全羅道”, 「李生窺牆傳」의 “松都一稱西京 卽王氏古都 駱駝橋 松都城內橋名 善竹里 松都街名 里在善竹橋” “五冠山在黃海道”, 「醉遊浮碧亭記」의 “天順明英宗復位年號 我後花園帝長祿二年 松京同松都 淇江亭在平安道淇江畔” “檀君姓桓 名王儉 唐堯戊辰二十五年卽朝鮮王位” “衛瞞 燕人 漢高祖時 逐王準而自立”, 「龍宮赴宴錄」의

27) 汪耀楠, 『注釋學綱要』, 語文出版社, 北京, 1991, p. 8

28) 汪耀楠, 같은 책, p. 14

29) 汪耀楠, 같은 책, p. 19

“朝鮮 以高麗爲前朝” 등에 쓰인 注釋은 지명, 사물, 인명, 연호에 대한 역사적 유래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조선의 역사 명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주석함으로써, 독서의 능률과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作文의 慣習과 法則에 대한 주석이다. 당시 일본인의 독자 수준에서 보면 텍스트에 쓰인 語法에 대한 이해 부족함을 보충하여 閱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³⁰⁾ 의도에서 붙인 주석이다. 『南炎浮洲志』에서 “湖山曰多用助字 似我邦二百年前儒流文”은 작품에서 관습상 助字가 많이 쓰인 것을 지적한 것인데, 문장의 문법적 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과거 일본의 유학자의 문장에서 이러한 예가 많았음을 지적하여 텍스트 서술상에 있어서 작문의 관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넷째, 創作 背景에 대한 주석이다. 작가가 창작한 여러 배경적 지식은 작품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 사회생활과 정치투쟁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서, 작가가 왜 그러한 문장을 지었고, 그러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였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작품의 정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³¹⁾ 『금오신화』에는 작가의 창작 심리, 작품의 사상적 배경 등 창작 배경에 대한 주석이 비교적 상세하다. 『萬福寺楞瀟記』에서 “小野湖山曰……實是天下奇文 三百年湮沒而復顯于世 固不足怪 歐陽公所謂精氣光怪 已能自發見者 蓋此類也”라 하여 작가의 精氣光怪한 심리가 작품에 드러난 것임을 밝혔다.³²⁾ 『李生窺牆傳』에서 “湖山曰全篇發于情 止于禮義 作者 勸懲之意 深矣”라 주석한 것은 독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한 시각을 드러낸 것인데, 작가가 의도한 勸懲의 뜻에 주목하고 있다. 『南炎浮洲志』에서 “李樹廷曰有此一懲創 蓋其自心 妄想之所造”라 하여 작품의 내용이 懲創한 면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南炎浮洲志』에서 “湖山曰佛教之盛行 彼我一般 實可驚者 但我邦近歲 其勢漸衰 朝鮮亦或然乎”라 하여 조선초 불교의 융성이 일본의 사

30) 汪耀楠, 앞의 책, p. 21

31) 汪耀楠, 같은 책, pp. 22~23

32) 蒲生重章이 금오신화의 발문에서도 “蓋作者成化初 抱才學與時不遇 故發憤慨於此焉耳”라 하여 작가가 마음 속에 쌓인 울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과 흡사한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간행 당시 불교의 쇠퇴함을 말한 것인데, 창작의 사상적 배경과 관련하여 반대의 입장에 놓여있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우고 있다.

이처럼 주석자들은 언어문자, 역사명물, 작문의 관습과 법칙, 창작 심리, 사상적 배경 등과 관련된 주석을 많이 첨가하여 독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작품 이해와 감상의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평의 양상

우선 텍스트의 내용적 성격을 '奇書'³³⁾라 인식한 데에서 비평의 시각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서 '奇'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금오신화』의 傳奇小說의 장르적 성격을 암시하고, 작품 속의 서사 구조와 문장·시가가 기묘하다는 것을 함축한 단어라 하겠다. 우선 서사 구조와 관련된 기묘함은 그 결연 과정이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된 표현이다. “中洲曰眞是非人世 隱然知爲殯葬之地”(『萬福寺楞蒲記』), “中洲曰果非人間”(『醉遊浮碧亭記』), “中洲曰閻羅禪讓 奇事奇事”(『南炎浮洲志』), “中洲曰人間未見之儀仗”(『龍宮赴宴錄』), “中洲曰篇篇風流奇話 眞是人間不見之書 兩絕能盡其書又盡其人”(『龍宮赴宴錄』) 등의 비평은 『금오신화』에서 영혼과의 사랑이나 꿈 속의 일, 저승에서 생긴 일 등 그 사건이 인간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허구적·낭만적인 성격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비평에서 ‘仙’(“湖山曰詩境仙境 寫來如畫 畫手却不能及”『醉遊浮碧亭記』), ‘神’(“湖山曰風流詔令 詩亦得趙管夫妻神味”『李生窺牆傳』) 등의 글자가 많이 쓰인 것도 서사 구조의 초월적 성격을 지적한 용어라 하겠다.

이러한 비평은 『금오신화』가 초월적 서사 구조를 통해 당대 사회현실에서 문제가 된 애정 갈등이나 이념 문제를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전기성을 획득한 것에 주목한 표현이다. 즉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현실적 논리에 입각한 직접적 대결을 통하지 않고 비현실계의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³⁴⁾

33) 이외에 포생중장, 소야호산의 발문에서도 “奇書”라 하여 『금오신화』의 전기소설성을 지적하고 있다.

蒲生重章, 『金鰲新話跋』 “嗚呼 如此奇書 埋沒不顯者 四百餘年矣”

小野湖山, 『金鰲新話跋』 “而此卷披讀 殆不能釋手 空覺愉快 可謂奇書矣”

뜻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평 용어는 『금오신화』의 전기소설로서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문장·시가의 기묘함은 수사적 문제와 관련된다. “湖山曰書生粗暴之狀 女子婉約之容 筆筆如畫”(『萬福寺樗蒲記』) “中洲曰此景此人 畫手不能寫”(『李生窺牆傳』) “李景弼曰典古蹟富”(『龍宮赴宴錄』) 등의 비평문은 작가가 묘사한 문장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장면을 훌륭하게 형상화한 것과, 또 그림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뛰어난 묘사 능력과 전고 사용 능력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식을 지닌 문인에 의한 창작성 및 문식의 가미는 흔히 전기소설의 한 특성으로 지적된다.³⁵⁾ 특히 비평자는 ‘傳神之筆’(『湖山曰形容四女子各異樣 眞是傳神之筆』) 『萬福寺樗蒲記』) ‘鬼神之筆’(『中洲曰如有如無 叙得恍惚 眞是鬼神之筆』) 『萬福寺樗蒲記』) ‘神力’(『中洲曰文亦似借神力』) 『南炎浮洲志』) 등의 비평어를 사용하여, 작가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감탄과 찬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작품 속에 담긴 함축적 의미와 결합되는데,³⁶⁾ 함축적 묘사는 주인공의 내면적 심리 상태나 독자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되어 표현될 때가 많다. “中洲曰此時生之喜如何”(『萬福寺樗蒲記』) “湖山曰喜極生畏怖 是亦人情所不免”(『李生窺牆傳』)이라는 비평은 중심인물인 서생과 아가씨의 결연 과정에서 유발되는 서생 내면의 기쁨과 정서적 긴장을 나타내고, “中洲曰讀者亦凜然 如入仙境”(『醉遊浮碧亭記』) “湖山曰問答之語 皆活潑靈動 使讀者有白日昇天想”(『龍宮赴宴錄』) 등은 독자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비평문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심리 묘사나 상황 묘사는 자아와 세계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산문 서사의 허구적 창조성을 강화³⁷⁾시키려는 작가의 창작 태도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겠다.

34)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古小說研究論叢』(茶谷李樹鳳先生回甲紀念論叢), 동간행위원회, 1988, p. 193

35) 李憲洪, 「崔致遠傳의 傳奇小說의 構造」, 『睡蓮語文論集』 제9집, 부산여대 국어교육과, 1982, pp. 173~174

林煥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pp. 22~23

36) 「龍宮赴宴錄」 중 “湖山曰有味外之味 咀之不厭 有音外之音 聆之愈妙”라는 구절이 있다.

37)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p. 238

이러한 허구적 서사 구조와 작품에서의 형상성, 작가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관심은 분석적 비평보다는 인상적 비평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中洲曰文字典麗 情緒纏綿 生盡畢世之力 修永訣之辭 可謂厭(壓)卷之作矣”(『萬福寺楞蒲記』) “梅外曰首首皆妙”(『李生窺牆傳』) “中洲曰愈進愈奇”(『醉遊浮碧亭記』) “湖山曰驚愕字妙”(『南炎浮洲志』) “梅外曰結一解最有味”(『龍宮赴宴錄』) 등의 예에서 보듯이, ‘壓卷’ ‘妙’ ‘進奇’ ‘有味’ 등의 비평어는 주관적·정서적 반응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서정적 소설에서의 세계는 시인의 <나>, 즉 서정적 자아와 동등한 서정적 관점으로 축소되며,³⁸⁾ 傳奇的 인간의 미적 특질인 외로움·내면성·감상성·소극성·문예취향 등에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되는³⁹⁾ 전기소설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곧 실제 비평이 주관적 반응에 기초한 인상 비평으로 흐른 것은 서정적 요소가 강조된 『금오신화』의 장르적 특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독해상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작품의 이해와 독자의 감상 수준·비평적 안목을 갖게 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주석과 비평은 전기소설의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정밀한 독서 행위이자 텍스트의 창조적 수용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Ⅲ. 독자층의 유학적 성향

1. 편찬자의 학문 성격

대충본 『금오신화』의 수용 계층과 보급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실제적인 독자였던 편찬자들의 학문 성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당시 출판에 적극 관여하고 주석과 비평을 한 인물은 依田百川, 小野湖山, 蒲生重章, 長梅外, 三島中洲 등의 일본인과 李樹廷과 李景弼 등의 한국인이다. 이들 편찬자의 성향을 밝히려면, 첫째는 일본인의 성격과 상호간의 성격, 한국인의 성격 등이 밝

38) Ralph Freedman 지음/신동욱 옮김, 앞의 책, p. 18

39) 박희병, 「傳奇的 人間의 미적 특질」, 『민족문화사연구』 제7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5, pp. 120~140 참고

혀져야 할 것이고, 둘째는 이들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은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인들의 성격과 그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依田百川(1833~1909) : 名 朝宗, 字 百川, 通稱 七郎, 號 學海

藩學 成德書院에서 배웠고, 계속해서 藤森弘庵에게서 經史를 배웠다. 佐倉藩에서 벼슬하여 儒臣이 되었고, 成德書院에서 교수가 되었다. 文久2년(1862) 代官役이 되었고, 慶應3년(1867)에 江戸藩 邸留守役이 되어 重職을 맡았다. 維新後 佐倉藩의 權大參事가 되었고, 明治9년(1876)에 修史局 編集官이 되었으며, 그후 14년(1881) 文部省 權少書記官이 되었으나 동 18년(1885)에 辭職하여 저술에 종사하였다. 詩文을 잘하였고, 稗史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더욱더 演劇을 좋아하여 戲劇改良運動에 분주하였다. 저서에는 『談叢』 2卷, 『譯海』 3권 등이 있다.⁴⁰⁾

小野湖山(1814~1910) : 名 長愿, 初名 卷, 字 侗翁·懷之·舒公·士達, 通稱 傳助·侗之助, 號 湖山·玉池仙史·狂狂生·晏齋

天保2년(1831) 江戸에 진출하여 尾藤水竹·藤森弘庵에게서 師事하였고, 또 梁川星巖의 玉池吟社에 참가하였다. 발탁되어서는 吉田蕃의 儒臣이 되었다. 諸蕃의 志士와 尊王攘夷를 논하였고, 水戶의 藤田東湖와는 친교가 있었다. 安政6년(1859) '安政の大獄'에 관계된 일로 吉田에 禁錮幽閉되어 8년간 이르렀다. 維新後 明治元年(1868) 東京에 나가 總裁局 權弁事가 되었고, 뒤에는 豊橋藩 權少參事兼時習館 督學이 되었다. 廢藩후에는 상경하였고, 뒤에 大阪에서 優遊吟社를 결성하여 詩名이 높았다. 詩는 白樂天을 흠모했고, 백낙천의 시를 으뜸으로 삼았다. 저서로는 『湖山樓』 10종 8책, 『優遊吟社詩』 2冊 등이 있다.⁴¹⁾

蒲生重章(1833~1901) : 名 重章, 字 子闇·意贊, 號 蓼亭·精菴·省庵·白囊子·青天白日樓主人

처음에 多紀蒔亭에게서 醫學을 배웠고, 뒤에는 加藤松齋에게서 經義를 배웠다. 村松藩儒가 되었고, 維新後 東京에 진출하여 議政官 史官·大學校 三等教授가 되었다. 저서로는 『近世偉人傳』 18권, 『近世佳人傳』 6권, 『蓼亭文鈔』 3권, 『蓼亭詩鈔』 2권 등이 있다.⁴²⁾

長梅外(1810~1885) : 名 允文, 字 世文, 號 梅外·南梁, 本姓 長谷氏

40) 近藤春雄, 『依田學海』, 『日本漢文學大事典』, 明治書院, 1985, pp. 705~706

41) 近藤春雄, 『小野湖山』, 같은 책, pp. 99~100

42) 近藤春雄, 『蒲生蓼亭』, 같은 책, p. 130

처음에 의학을 배웠지만 곧 유학에 뜻을 두어 廣瀨淡窓에게서 배웠다. 講說을業으로 하였고, 詩·書를 잘하였다. 維新後에는 東京에 거주하였다. 저서로는 『詩學問津』 3권, 『梅外詩話·梅外詩鈔』 6권 등이 있다.⁴³⁾

三島中洲(1830~1919) : 名 毅, 字 遠叔, 號 中洲

처음에 松山藩儒 山田方谷에게서 배웠고, 계속해서 伊勢 津의 藩儒 齋藤拙堂의 塾에서 배운 지 5년에 安政4년(1857) 江戸에 진출하여 昌平齋(막부의 유학 교육 기관)에 들어가 佐藤一齋·安積良齋 등에게서 배웠다. 6년(1859)에 藩校 有終館의 學頭가 되었고, 또 家塾을 열어서 虎口溪舍라 칭했다. 維新後 明治5년(1872)에 法官이 되었고, 新治裁判長·大審院中判事 등을 역임하였다. 10년(1877)에 退官하여 麴町一番町에 漢學塾을 설치하여 二松學舍라 이름을 짓고 子弟들을 교육하였다. 이후에는 高等師範學校 教授·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教授가 되었고, 뒤에는 東宮侍講·宮中顧問官을 역임하였다. 그의 학문은 처음에는 朱子學에 있었지만, 만년에는 陽明學으로 옮겼고, 實用을 중시하였다. 특히 詩文을 잘하였다. 저서로는 『中洲詩稿』 2권, 『中洲文稿』 12권 등이 있다.⁴⁴⁾

위의 인용된 글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강호시대에 주자학을 신봉하고 막부의 儒官에 발탁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유학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依田百川과 小野湖山の 스승인 藤森弘庵(1799~1862)은 강호시대 유학의 거두로 미국의 함대가 일본의 해안에 상륙하자 海防論을 주장하였고,⁴⁵⁾ 蒲生重章의 스승인 加藤松齋(1793~1881)도 海防論을 주창하여 막부의 신임을 받은 유학자였다.⁴⁶⁾ 그리고 小野湖山이 영향을 많이 받은 梁川星巖(1789~1858)은 강개한 선비로 勤王의 지사들과 교유하면서 尊王攘夷를 주장한 인물이었다,⁴⁷⁾ 특히 그가 교유한 藤田東湖(1806~1855)는 극단적인 배외 입장을 견지하고 尊王攘夷를 주창한 水戶學의 중심인물이었다.⁴⁸⁾ 三島中洲의 스승인 佐藤一齋(1772~1859)·安積良齋(1790~1860)·齋藤拙堂(1797~1865)·山田方谷(1805~1877) 등⁴⁹⁾은 주자학을 신봉하고 막부의 유관에 발탁되어 관학의 권위를

43) 近藤春雄, 『長梅外』, 앞의 책, p. 429

44) 近藤春雄, 『三島中洲』, 같은 책, p. 632

45) 近藤春雄, 『藤森弘庵』, 같은 책, p. 580

46) 近藤春雄, 『加藤松齋』, 같은 책, p. 122

47) 近藤春雄, 『梁川星巖』, 같은 책, p. 670

48) 近藤春雄, 『藤田東湖』, 같은 책, pp. 578~579

49) 近藤春雄, 앞의 책, 해당 각 항목 참고

확보하고, 배외적인 입장을 취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처럼 강호시대의 儒學은 막부의 권력체제를 안정화하고 봉건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보편주의로서의 지배 이념이 되었는데, 막부말기에 오면 일본에서의 보편적 가치의 원천은 황실을 존중하고 믿는 자세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화적 내셔널리즘⁵⁰⁾으로 변모된다. 이 변모된 유학은 외세의 위협으로 인하여 폭발하는 정치적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막부의 쇄국정책을 강화시키게 된다. 『금오신화』의 편찬자들인 依田百川, 小野湖山, 蒲生重章, 長梅外 등의 유학자들은 그들의 스승들과 사상적 경향을 같이하고 배외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막부의 쇄국적 정책에 기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계속적인 외세의 개방 요구와 압력에 밀려 막부는 이전의 극단적인 쇄국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大名들은 통상·외교관계 수립의 불가피함에 동의할 하게 되어 막부내의 개혁이 제기되고, 정책의 수정을 논의하는 등 막부가 방침을 바꿔 개국적 입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기존의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제후들의 정치권력의 국가적 응집에 대한 요구에서 나온 尊王攘夷論⁵¹⁾은 수동적인 막부의 무기력한 태도를 비판하고 천황을 위해 서양인과 대결하고 안으로는 부패무능한 지도자들과 싸워야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막부는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되살리려는 차원에서 막부의 개국적 입장에 반대한 이들 관료와 학자들을 체포·처벌하는 사건('安政의 大獄')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막부에 동조하지 않았던 존왕양이운동의 행동 방향은 영웅적인 폭력활동으로부터 藩을 기반으로 한 조직된 倒幕(幕府打倒)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⁵²⁾

결과적으로 이 존왕양이론은 외세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국민적 단합을 결집하여 막부의 권력을 상실케 한 점에서는 정치운동으로서의 긍정적인 의의는 있었지만, 새로운 근대적 이념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⁵³⁾ 앞 시기 유학의

50) 川崎庸之·奈良本辰也 공편/김현숙의 옮김, 『일본문화사』, 혜안, 1994, pp. 274~275

51) 丸山眞男 지음/김석근 옮김, 『日本政治思想史研究』, 통나무, 1995, p. 511

52) Peter Duus 지음/金容德 옮김, 『日本近代史』, 지식산업사, 1983, p. 77

53) 依田百川, 小野湖山, 蒲生重章, 長梅外, 三島中洲 등이 명치유신 이후에 계속적

배외적 입장을 계승하여 존왕양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창한 小野湖山이나 依田百川, 蒲生重章, 長梅外, 三島中洲 등의 유학적 성격 혹은 정치적 성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유학자들은 위의 인용된 글에서 보듯이 봉건적인 유학적 성향 이외에 詩文 등의 문예에 능통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학적 지식에 해박하고 문예에 능통한 그들로서는 강한 '문예취향'을 가진 傳奇的 주인공이⁵⁴⁾ 등장하는 『금오신화』를 하나의 문예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依田百川이 만년에 이르러서는 “稗史 읽기를 좋아하였으며, 더욱더 演劇을 좋아하였다.”라는 위의 언급과 小野湖山의 “근세의 曲亭馬琴⁵⁵⁾이 지은 戲著중에 때때로 이와 같은 묘함을 볼 수 있다.”⁵⁶⁾ “우리 東京의 浮世繪 같은 데서 종종 이러한 묘한 묘사가 있다.”⁵⁷⁾ 등에서 보듯이, 이들은 비규범문학인 稗史·讀本이나 통속적인 풍속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오신화』의 전기적

으로 新政에 참여할 수 있었던 동인은 그들의 진보적인 사상적·학문적 경향에서 찾기보다는 尊王攘夷運動을 통하여 막부의 권력에 타격을 준 정치적 의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개국적 입장으로 전이한 것도 攘夷를 위한 開國이었고, 和魂을 위한 洋才였다”(川崎庸之·奈良本辰也 공편/김현숙의 옮김, 앞의 책, pp. 290~293 참조)는 점에서 진정한 개국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54) 박희병, 앞의 논문, p. 137

55) 曲亭馬琴(1767~1848): 복잡한 구성과 傳奇的 줄거리를 가진 작품을 많이 지었는데, 무사도 정신에 유교사상을 보태고 불교의 인과응보설로 통일시킨 그의 讀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으며, 특히 史傳物이 뛰어났다(淺井清·速水博司, 『日本文學史のまとめ』, 明治書院, 1980, p. 75). 또한 그는 중국의 소설 평론에서 암시를 받아 소설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소설 창작과 이론의 양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日本古典文學大辭典編集委員會 편, 『日本古典文學大辭典』 제2권, 岩波書店, 1984, pp. 209~211 참고)

56) 小野湖山の 「李生窺牆傳」의 비평 중 “近世曲亭馬琴 戲著中 時見此等之妙”

57) 小野湖山の 「萬福寺樗蒲記」 비평 중 “湖山口女不之難四字妙極 但我東京浮世繪者 往往能描出此妙”. 여기서의 浮世繪는 강호시대에 발달한 민중적인 풍속화 양식으로 판화에서 독자적 세계를 연 회화를 말하는데(武藤誠 지음/姜德熙 옮김, 『일본미술사』, 지식산업사, 1988, p.172), 18세기 우리나라 신문복이나 김홍도의 그림처럼 性을 제재로 한 성풍속화에도 같은 성격이다. 이처럼 당시 강호시대의 성풍속은 예술에서의 주요한 제재가 되었는데, 소설 방면에서는 ‘好色物’ 계통의 ‘浮世草子’가 대표적이다. 금오신화에서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牆傳」에서 형상화된 남녀간의 애정을 이 浮世繪에 비유한 것이라 하겠다.

성격과 애정 모티브에 주목한 언급이라 하겠다. 그리고 小野湖山은 심신의 쇠약 상태에서 여가를 즐기 위해 『금오신화』를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⁵⁸⁾ 이는 소설의 정서적 기능과 관련된다. 즉 傳奇나 애정 갈등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을 통하여 긴장의 이완이 가능케 됨으로써 심신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에 독서 의의를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비정통문예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이었고 소설의 정서적 기능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마침 東京 榎月堂에서 大塚彦太郎 家藏의 『금오신화』를 출판함에 있어서 선뜻 서문을 썼고 주석과 비평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들 일본인과 한국인 李樹廷(1842~1886)⁵⁹⁾·李景弼⁶⁰⁾의 관계가 문제로 제기된다. 李樹廷은 한국 改新敎史와 開化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져 渡日한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당시 개신교의 지성인들과 교류하면서 기독교에 심취하여 세례까지 받았고, 동경외국어학교 한국어교사로 있으면서 마가복음 등 성서를 번역하는 등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884년에는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조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朝鮮日本善隣互話』을 저술하였고,⁶¹⁾ 1886년에는 朴齊綱의 『近世朝鮮政鑑』의 서문을 썼고,⁶²⁾ 1887년에 간행된 『明治字典』의 韓語訓 표기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⁶³⁾ 한국의 풍속과 제도에 관한 글을 잡지에 많이 발표하는 등 개

58) 小野湖山, 『金鰲新話跋』 “余近衰耄 披尋常書多不能經卷”. 한가한 시기에 비평 행위 뿐만 아니라 저술 행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拙稿, 『文學創作 動因으로서의 閑과 그 表出 樣相』, 부산대 석사, 1992 참고)

59) 李樹廷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白樂濤, 『韓國改新敎史』, 연세대 출판부, 1973

李光麟, 『李樹廷의 人物과 그 活動』, 『韓國開化史研究』(改訂版), 一潮閣, 1993

吳允台, 『韓國基督敎史Ⅳ』 <改新敎傳來史>(先驅者 李樹廷編), 惠宣出版社, 1983

이만열, 「이수정의 개종과 활동(I·II)」, 『빛과 소금』, 두란노, 1988. 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60) 李景弼은 이수정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渡美까지 하게 되었던 인물인데(吳允台, 같은 책, pp. 118~119), 이로써 보면 李樹廷의 사상적 경향과 동계에 있었다고 하겠다.

61) 櫻井義之, 앞의 책, p. 366

62) 李光麟, 『近世朝鮮政鑑에 대한 몇 가지 問題』, 같은 책, pp. 252~272 참고

63) 櫻井義之, 앞의 책, p. 366

화기 시대의 한일 교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그는 일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漢詩를 잘 지은 것을 보면,⁶⁴⁾ 전통적인 한학 가문에서 출생하여⁶⁵⁾ 한문학적 지식과 문장에 뛰어났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⁶⁶⁾

이러한 그의 학문적 능력과 국제적 시야는 당시 일본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시 저명한 한학자였던 일본인과 李樹廷이 한학적 공감대와 문예 취향을 통해 자연스런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인들은 『금오신화』를 간행하면서 정밀하게 작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한학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시문 창작에 조예가 깊었던 이수정에게 발문과 주석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2. 서발문의 텍스트 인식

위에서 보인 편찬자들의 성격이 그들의 서문과 발문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서문과 발문은 편찬자의 편찬 의식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양식이기 때문에, 편찬자의 독서 성향

64) Henry Loomis, 「The First Korean Protestant in Japan,」 『The Korea Mission Field』 33호, 1937. “그는 또한 모두들 감탄할 정도로 漢詩를 잘 지었다. 이에 따라 日本의 일류 신문사에서는 그가 쓴 것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는 탁월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다.”(李光麟의 앞의 책 p. 238에서 재인용)

65) 이수정의 부친인 李秉濂도 “내(井上角五郎)가 조선에 건너가서 여러 학자들을 만났으나 내가 지은 글의 문장과 주의를 이렇게 깨닫어 본 사람(李秉濂)은 처음이었다.”라는 일본인의 언급을 통해서 보면, 한문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대학자로 생각된다.(吳允台, 앞의 책, p. 20 참고)

66) 李樹廷의 신분적 위치에 대해서는 왕족 가계를 지녔고 무반에 속하는 인물로 보는 견해(吳允台, 같은 책, p. 38)와 상인출신으로 보는 견해(李光麟, 같은 책, p. 236)로 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수정의 당시 정치적 관계나 문학적 소양으로 볼 때 귀족계급에 속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67)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南炎浮洲志』에서 李樹廷이 첨가한 주석과 비평의 일부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한 것”(李光麟, 같은 책, p. 247)으로 해석한 것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먼저 유학적 성향을 지닌 일본인과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이수정이 동일한 종교적 지향에서 텍스트를 수용하였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이수정의 완전한 유교적 윤리관의 청산 의식이 주석과 비평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依田百川은 『금오신화』 서문에서

“「樗蒲記」·「窺牆傳」 두 작품은 문사가 아름다우나 지속적인 習氣를 벗어나지 않았고, 「浮碧亭記」는 樂而不淫, 哀而不傷하여 시인의 뜻을 얻었다. 「浮洲志」는 閻王을 빌려 性命의 이치를 말했는데, 그 의론이 탁월하여 재식을 구비한 자가 아니면 결코 판단할 수 없다. 「赴宴錄」은 그 文章이 힘차며 詩賦가 雅麗하여 그의 해박한 학문 수준과 뛰어난 재주를 알 수 있다.”⁶⁸⁾

라고 하였다. 위의 인용문을 볼 때 의전백천의 『금오신화』에 대한 평가는 사대 부적 미의식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남녀의 애정 갈등이 중심 모티프가 된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의 경우 치밀한 애정의 형상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그 사건의 전개 구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 「醉遊浮碧亭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는 유학적인 미적 관념에 충실한 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南炎浮洲志」도 ‘성명의 이치’라는 유학의 이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긍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龍宮赴宴錄」에서는 작가의 높은 학문 수준과 뛰어난 재주가 긍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서문에서 『금오신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작품에서 표출된 유가적인 미적 관념과 작가의 뛰어난 창작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蒲生重章은 『금오신화』 발문에서

“「萬福寺樗蒲記」·「李生窺牆傳」·「南炎浮洲志」·「龍宮赴宴錄」 등의 여러 작품은 그 정서가 비단과 같고, 혹은 감개함이 쌓인 듯하고, 혹은 비장감이 스러있고, 혹은 의론이 명쾌하거나 호탕한 감정이 풍부하여 한 번 읽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솟구쳐 오르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작품은 虞初의 體가 많은데, 성현의 正大한 筆氣가 부족하나, 오직 「醉遊浮碧亭記」 한 편만은 문장이 구양수·소식과 같고, 시는 두보의 忠憤과 허훈과 유우석의 필법과 같으니, 실로 壓卷이라 하겠다.”⁶⁹⁾

68) 依田百川, 『金鰲新話序』, “「樗蒲記」窺牆傳, 二篇 辭則美矣 未能脫淫靡之習 「浮碧亭記」則樂而不淫 哀而不傷 得風人之旨 「浮洲志」則借閻王 說性命之理 議論卓越 非才識具備者 決不能辨也 「赴宴錄」則文章雄峻 詩賦雅麗 可以見其該博之學與俊拔之才矣”

69) 蒲生重章, 『金鰲新話跋』, “如其「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南炎浮洲志」, 「龍宮

라 하였다. 포생증장은 『금오신화』의 독서 효과가 정서적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금오신화』의 네 작품이 비사실성을 위주한 虞初의 형식⁷⁰⁾이 지배적이어서 의리와 공명을 숭상하는 성현의 산문 정신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긍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러 작품 중 「취유부벽정기」를 유독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작가의 뛰어난 창작성 이외에 두보 시의 주제가 된 忠憤과 허훈과 유우석 시의 주제였던 역사 회고 의식 등⁷¹⁾이 작품에 적극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었다. 충분과 회고는 대개 전통과 복고 의식에 주목한 유가들의 정신 세계에 닿아 있는 주제 중의 하나라 하겠는데, 『금오신화』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발문에서 나타난 『금오신화』의 인식을 보면, 작가의 뛰어난 창작성과 형상성에 대하여 긍정을 하였고, 유학적인 틀로써 작품의 내용을 평가 하였음을 알았다. 다음으로는 주석과 비평에 유학자의 의식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주석·비평의 시각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주석과 비평도 유학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李生窺牆傳」에서 “中洲口情死即義死”라는 주석의 예를 보면, 三島中洲는 ‘情’을 ‘義’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적 사랑의 완전한 성취에서 비롯된 죽음을 사회적 관계로 그 의미를 확대한 것은 유가 윤리의 차원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유학적 성향을 지닌 삼도중주의 의식이 작품의 주석에 개입된 결과로 보이고, 사회적 윤리의 재생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南炎浮洲志」에서 “中洲曰佛說之害風俗 彼此同歎”이라 하여 불교를 풍속을 해치는, 부정적

赴宴錄, 諸篇或情致纏綿 或感慨鬱勃 或悲壯淋漓 或議論明快 或豪懷骯髒 一讀使人擊節不已 但諸篇 多虞初體 特乏聖賢正大之筆氣矣 而獨如「醉遊浮碧亭記」一篇 其文則歐蘇 而詩則老杜之忠憤 而許渾劉禹錫之筆墨也 實是爲壓卷”

70) 劉世德 外編,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1993. 「虞初周說」, 「虞初志」참고

71) 馬良春·李福田 總主編, 『中國文學大辭典』 제4권, 天津人民出版社, 北京, 1991. 「許渾」, 「劉禹錫」참고

인 것으로 인식한 것도 그의 유학적 사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萬福寺楞瀟記」의 “湖山曰四女詩 皆不失優柔靜婉之旨 毫無脂粉鄙俚之氣” “中洲曰樂而不淫” 등의 비평에서 쓰인 ‘優柔靜婉之旨’ ‘無脂粉鄙俚之氣’ ‘樂而不淫’ 등의 용어는 은유둔후한 미의식을 추구한 유학자의 미적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은 심성의 도야를 목적으로 한 유가의 학문에서 철저히 통제 대상이 되었다. 「만복사저포기」를 ‘樂而不淫’이라고 비평한 것은 依田百川이 금오신화의 서문에서 「취유부벽정기」를 ‘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고 평가한 태도와 유사한데, 작품의 성격을 유가적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萬福寺楞瀟記」에서 “中洲曰首首不免怨妬 宜矣得金氏之責也”라 평하였는데, 人欲의 지나친 노출이라 할 수 있는 원망과 질투를 작품 속에 형상화한 것을 작가의 잘못으로 비판하였다. 이는 철저히 유교적 시각에서 작가의 창작 태도를 문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李生窺牆傳」에서 “中洲曰孝子孝婦” “湖山曰全篇發于情 止于禮義 作者 勸懲之意 深矣” “中洲曰以一義字結全篇 好 夫可以瞑矣” 등의 비평문에 쓰인 ‘孝’ ‘義’ ‘禮義’ ‘勸懲’ 등은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작품 평가 용어에 해당된다. 즉 작가의 창작 욕구는 자아의 수양이나 사회 질서 체계의 정립과 재생산이라는 가치와 부합될 때, 그것도 긍정될 수 있다는 유가적 발상에서 나온 비평인 셈이다.

이처럼 『금오신화』의 주석과 비평에는 유학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인식하려는 태도가 깊숙히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감상 태도는 서문을 통해 본 텍스트 인식과 편찬자들의 유학적 성향과 같은 맥락에 있다.⁷²⁾

72) 서발문이나 주석과 비평에서 나타난 유학적 관념은 무엇보다도 텍스트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오신화 5편의 소설에는 각종의 典故가 있는데, 유학의 經書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녀간의 비극적인 애정이 주요한 모티브가 된 「萬福寺楞瀟記」나 「李生窺牆傳」에서 사랑을 내용으로 한 『詩經』의 시가 많이 인용되었고, 성리학적인 이념 문제를 깊이 다룬 「南炎浮洲志」에서 『禮記』·『書經』·『易經』·『孟子』·『中庸』 등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었으며, 그외의 작품에서 經書가 인용되었음을 찾을 수 있다. 곧 이러한 경서적 요소는 일본인들에게 금오신화를 유학적 이념이 강하게 반영된 작품으로 인식하게 하였을 것이고, 유학에 기반을 둔 편찬자들은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에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비평과 주석을 첨가하고, 서발문을 썼을

IV. 결 론

일본 명치시대의 초기에 한국의 『금오신화』가 이전의 『금오신화』를 改版하여 새로운 서적의 형태로 다시 출간된 것은 한일 서적교류사나 나아가 문화교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한국의 고소설을 간행한 동인은 텍스트의 체재를 통하여 구체적인 독자층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오신화』의 텍스트 편집에 있어서 서발문과 주석·비평이 있는 완전한 서적의 체재를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서발문에서는 텍스트 자체와 관련된 『금오신화』의 장르적 성격과 중국 소설과의 관계, 출판의 동기를 나타내었다. 출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오신화』를 산문과 운문이 혼합된 전기소설로서 우선 주목을 하였고, 동시에 『전등신화』와의 영향 관계에 있는 소설임을 지적하였으며, 어려운 전기소설의 특성상 독서의 효율성과 이해의 심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석과 비평을 첨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새로운 시대 의식을 반영하는 문학 양식이 모색되던 시기에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전기소설인 『금오신화』를 출간함에 있어서 그 해명이 필요하였고, 그들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출판 의의를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금오신화』의 간행에 참여한 일본인들은 막부시대 말기에 외국 세력의 위협에 직면하여 존왕양이론의 입장에 서서 쇠국의 원척을 견지한, 한학적 소양과 지식이 풍부했던 유학자들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한학적 소양과 함께 문예에 관심도 지대했던 사람들이었다. 한문 전기소설로서의 『금오신화』는 그들의 문예적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텍스트의 성격상 유교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금오신화』는 유학에 학문적 근거를 둔 그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발문이나 실제 작품의 비평에서도 유학적 관점이 많이 개입된 것은 『금오신화』를 수용한 그들의 학문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또 이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이수정을 출판에 동참케 한 것은 이수정의 한학

것으로 보인다.

적 지식이나 문학적 능력에 주목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결국 그들은 한학의 공통적 관심·문예적 취향과 양국간의 문화적 교류라는 인식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보다 정밀하게 텍스트를 수용하기 위하여 주석과 비평이 첨가된 완전한 서적의 체재를 갖춘 『금오신화』를 간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다.